



즉시 배포용: 9/12/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최소임금 인상이라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에서 대규모 지원단을 이끌다

2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이 2015년도 NYC Central Labor Council 노동절 퍼레이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거리행진을 하다

Cuomo 주지사가 가진 즉석 연설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고](#); 퍼레이드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20여명의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경제정의를 위한 Mario Cuomo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2015 NYC Central Labor Council 노동절 퍼레이드에서 행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달 후, 주지사 행정부는 선출직 공무원, 업계 선도업체,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15달러의 뉴욕주 최저임금을 지지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캠페인에 나설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품위있게 살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이번 캠페인은 우리 뉴욕주의 가정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단일 행동입니다.”

2015 NYC Central Labor Council 노동절에서 즉석 연설을 하는 Cuomo 주지사의 동영상은 YouTube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사진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Mario Cuomo는 뉴욕주지사로 화동한 3년의 재임기간 이전, 당시 및 이후에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왔던 분입니다. 그는 주지사 시절에 최저임금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인상하여 총 28%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임금 노동 착취행위를 뉴욕주에서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Garment Workers Strike Force**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보건 비용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주/조합 합자 공동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근로자들은 보건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Mario Cuomo Economic Justice Campaign은 2016년 뉴욕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시간당 15달러를 목표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싸우는 이러한 유산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15달러 최저임금을 위한 다음 입법심의회에서 법안이 제출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퍼레이드에서 주지사와 합류하는 선출직 공무원:

연방 하원의원 Nydia Velazquez
연방 하원의원 Charles Rangel
연방 하원의원 Carolyn Maloney
뉴욕시 감사관 Scott Stringer
Bronx Borough 국장인 Ruben Diaz Jr.는
Queens Borough 구청장 Melinda Katz.
상원의원 Adriano Espaillat
상원의원 Brad Hoylman
상원의원 James Sanders
상원의원 Diane Savino
주의회의원 Michael Blake
주의회의원 Marcos Crespo
주의회의원 Maritza Davila
주의회의원 Michael DenDekker
주의회의원 Richard Gottfried
주의회의원 Guillermo Linares
주의회의원 Walter Mosley
주의회의원 Francisco Moya
주의회의원 N. Nick Perry
주의회의원 Jo Anne Simon
주의회의원 Aravella Simotas
뉴욕시협회의회의원 Margaret Chin
뉴욕시협회의회의원 Mathieu Eugene
뉴욕시협회의회의원 Ben Kallos
뉴욕시협회의회의원 Rory Lancman

Charles Rangel 연방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지사께서는 근면한 뉴욕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분으로 도움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의를 위한 행진에서 큰 도약을 한 날로, 최소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면 이 아름다운 뉴욕시와 뉴욕주 거주 가정들에게 자신들과 커뮤니티에 더 밝은 미래를 안겨줄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Bronx Borough 국장인 Ruben Diaz,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내놓은 뉴욕주 전역에서의 15달러 최저임금 인상 요청은 환영할만한 일이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및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Adriano Espaillat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이 현실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우리 뉴욕주의 주민들인 근면한 근로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모든 뉴욕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존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리더십을 발휘해준 주지사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입법심의회에서 시간당 15달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Brad Hoylm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최저임금은 많은 뉴욕주민들을 끝없는 가난 속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가둬놓아 너무 오랫동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게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내년도 입법심의회에서 뉴욕주의 15달러 최소임금을 이뤄내기 위해 싸울 것을 서약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최소임금 인상이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주지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뉴욕주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라면 이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Michael Blake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9-SEIU 가정 출신인 저는 뉴욕주민들과 그들의 경제 정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fightfor15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도 가난해지거나 먹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South Bronx를 바꿔놓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의를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Ben Kallos 뉴욕시협의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기회의 땅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뉴욕은 미국에게 성공의 길을 비춰주는 횃불 역할을 하였습니다. Mario Cuomo 주지사의 정신을 기려, 이제는 우리의 불을 밝히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여 이 뉴욕시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밝게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가꿀 차례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